

## 京畿道水原花山龍珠寺水原布教堂上梁文

### 原天

冠岳南走西結麗御華城其天作 如圍達吞江湖之氣 漢律錦渡之八日 既詠  
歸眺望西 澤上柳下柳春風

#### <사찰의 근원>

관악산이 남쪽으로 달려서 서쪽에서 맺어서 아름답게 화성을 제압하  
고 그 하늘을 지으니, 주위가 활달하고 강과 호수의 기운을 삼켰다. 한  
나라의 법률에서는 비단으로 팔일을 가설하였으나, 이미 영귀<sup>1)</sup>에서 서  
쪽을 바라보니 연못 위에는 버드나무요, 버드나무아래에는 봄바람이로  
다.

八達北擡而爲門 望仙樓而人造 若互迥樓風烟之婿 橋法基滿之月 時復  
清落顧眇東 章遲遲大皇竊日

팔달문의 북대가 성문이 되었고 신선의 누대를 바라보니 사람이 만  
들었구나. 지극히 먼 누대에는 바람과 연기의 벗과 같으니, 다리의 법  
과 기초는 보름달과 같구나. 이때 다시 맑은 빛방울을 돌아보고 동쪽을  
바라보니 악곡은 몹시 느리나 큰 봉황은 두견새의 날이구나.

### 由是

佛宇咸構華山龍珠寺之湯力 所喆金文灑着依係 然白馬未鳴雲奔 有信檀  
越榔比顯說眞說 俗者女儷不億居 然化城惟進無退

#### <원인을 밝힘>

법당과 모든 기둥과 화산 용주사의 들끓는 힘은 명철한 금같은 문장  
으로 희미한 의지에 집착함을 씻어냈다. 그러나 백마는 울지 않았고 구

1) 영귀정(詠歸亭)은 조선전기의 학자 김광수(金光粹, 1468~1563년)가 세운 정자로,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명고길 592-7(서변리 319)에 있다. 이곳에서는 팔달문을 가르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름은 달릴지라도, 신심있는 신도들은 큰 나무에 비유되고 현실<sup>2)</sup>은 진실된 말이다. 재가의 여인의 짝이 되더라도 억년을 살수 없으나, 교화된 성곽은 오직 나아갈 뿐 물러남이 없는 것이다.

教堂豁開水原紳章 再之傾心歎聽玉軸翻騰 翩翹非黃鶴起舞 風化無賴頑  
送間 錯戶口道善唱 教者厥弄無量 可憐窮子自返窓逃

포교당을 크게 열으니 수원의 신(紳)<sup>3)</sup> 표식으로 다시 기울어진다. 고운 마음의 옥축<sup>4)</sup>이 뒤집어져 날아오르고 나부끼니 꾀꼬리가 일어나 춤추는 것이 아니며, 바람은 의지함이 없이 완고하게 틈을 보내는구나. 어긋난 호구<sup>5)</sup>의 길을 잘 부르겠으니, 가르치는 자는 그 희롱함이 끝이 없고 가엾은 가난한 자는 스스로가 반대로 빨리 벗어날 것이다.

## 然以

是堂之役實非偶 然監視之幹事夜未眸 而書未貯鳩財濟濟 是檀信家之補助爲源 前者呼後者應牛喘舌 而流延輪扁彌月斫木翼 然下降于知足天宮 專注一片烟誠 蒼梧陵園之至性尙存

### <그러한 까닭으로>

이 법당의 부역은 진실로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감시하여 저녁에도 자세히 살폈고, 편지도 바라보지 않았으나 재물을 거두어 많고 많으니 이곳은 신도들 집의 시주가 근원이다. 이에 사람이 부르고 뒤의 사람의 소가 혀를 내미는 것처럼 대답한다. 그러나 거침없이 불러들인 운편이<sup>6)</sup> 몇 달에 걸쳐서 나무와 서가래를 잘랐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오니 하늘 궁전의 만족함을 알았고, 오로지 한 조각의 연기의 진실에 흐르는 것이니, 푸른 오동나무에 능원<sup>7)</sup>의 지극한 성품이 오히려 있는 것이다.

2) 부처님께서 밝혀서 설하신 법문을 나타낸다.

3) 고대 중국의 복식용 끈(帶紐)이다. 폭이 몇 cm가 견직물 띠(大帶)의 단 아래에 늘어진 부분을 말한다. 길이는 3척(약 70cm)이고, 이것을 앞에서 매어 띠를 죄고 아래로 내려트렸다.

4) 왕이 공신에게 내린 두루마리 글을 가르킨다.

5) 호적(戶籍) 상(上)으로 집의 수효(數爻)와 사람의 수효(數爻)를 말한다.

6) 춘추 시대 제(齊)나라 사람으로 바퀴를 잘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뛰어난 목수를 가르킨다.

7) 왕이나 왕비(王妃)의 무덤인 능(陵)과 왕세자(王世子) 등(等)의 무덤인 원(園). 곧, 왕족(王族)들의 무덤을 가르킨다.

是堂之勞抑其太困 運籌之住持 昨之南而今之北伐木丁丁 且顯隆園之禁卷 其本左邊護右邊扶人徹汗 而凝液樵匠不日告功巍 然上升芳善住樓閣 普施無遮慈悲 白日暴露之貴骨是在

이 법당의 노고로 큰 피로함을 억누르고 주지의 산가지를 운용함이  
라. 이전의 남쪽은 지금의 벌목의 정정<sup>8)</sup>이고, 또한 현릉원<sup>9)</sup>의

금기인 곤룡포이다. 그 근본에 왼쪽에서 보호하고 오른쪽에서 사람을  
도왔으나, 많은 땀이 겨드랑이에 응고된 외나무다리의 장인은 낮에 높  
은 공덕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상승하는 꽃같이 좋게 안주한 누각은  
널리 보시하여 막혀진 자비가 없게 하였고, 낮에 폭로<sup>10)</sup>된 귀굴<sup>11)</sup>이 이  
곳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 所願

性詮師之法力代不乏絕 頑石徒之聽心世其相承 化城俗正 於是鄉阿郎偉  
拋樑東 三山高出存 慈濟蓋沾 於全國金盤 曉日劈雲紅 自天瑞杏鰲背  
拋樑南 春酒花城人 自若望中 西柳東風吹拂甘 梅山橋日照新龕 極望  
拋樑西 客照平湖三十里  
拋樑北 青山眼中迷 一聲汽笛萬波濟 光教高標樞宸極 御駕當年紅日歸  
拋樑上 有時仙樂長安孤月在 五碧蒼蒼九萬杏無響 雲衢祥光自生風  
拋樑下 舞月弄琴相共和星斗擁 遠迥人間渾撲地 雨花風度市變掃

## <소원>

부처님의 성품의 법력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쓸모없는 돌같은 무  
리들이 청하는 마음도 세상에서 그것이 서로 이어지며, 교화된 성곽은  
재가에서 올바르니, 고향의 아랑위<sup>12)</sup>이어라.

동쪽을 들어올리니 세 산이 높이 솟아 있어서 자비와 넉넉함이 전국  
의 금쟁반에 모두 적셔지고, 하늘의 상서롭고 크며 자라의 등으로부터

8) 나무를 베는라고 도끼로 잇달아 찍는 소리를 뜻한다.

9)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조선(朝鮮)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을 가르킨다.

10) 남의 비밀(秘密) 등을 파헤쳐서 다른사람의 앞에 드러내는 일을 말한다.

11) 귀하게 될 사람의 골격 또는 귀하게 자란 사람을 가르킨다.

12) '아라랑'의 노래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다.



밝은 날에 구름의 붉은 것을 분별하라.

남쪽을 들어올리니 봄의 술과 화성의 사람들이 스스로가 바라는 가운데와 같다면 서쪽의 버드나무와 동쪽의 바람이 불어 달콤함을 펼쳐라. 매화산의 다리에서는 낮에 새로운 감실을 비추기를 지극히 바라옵니다.

남쪽을 들어올리니 손님들이 평탄한 호수를 30리를 비추어라.

북쪽을 들어올리니 청산은 눈속에서 미혹되고, 한 소리의 기운은 피리의 만개의 파도를 일으켜라. 빛같은 가르침은 높은 표식이고, 공경스럽고 하늘의 지극함이니, 임금의 가마가 올해에는 새벽에 돌아가리라.

위쪽을 들어올리니 어느 때 신선은 즐겁고 장안<sup>13)</sup>에는 홀로된 달이 있어라. 다섯이 푸르고 앞길이 멀어서 아득하니 구만에 크고 향기로운 구름이 없고, 네거리에는 상서로운 빛이 스스로 생겨나서 부는구나.

拋樑下 舞月弄琴相共和星斗擁 遠迥人間渾撲地雨花風度市變掃

위쪽을 들어올리니 달이 춤추고 거문고를 희롱하며 서로가 함께 별과 화합하여 말로 옹호하고, 멀고 큰 세상의 혼란을 때려눕히며, 땅에는 비가 내리고 꽃은 바람에 시장을 건너서 변하여 없어지어다.

## 伏願上樑之浚

堂宇永享於禪天 慕祖通之清趣 徒衆畢至於法席 遵如未之家風  
迨達於自分卜居 成就上東大道 祈之又祈  
自在於社會活曜 救濟昏象衆生 祝之又祝

〈상량의 곁이에서 앞드려 발원하다.〉

법당은 영원히 선천<sup>14)</sup>을 누리고, 조사의 청정한 태어남에 통하는 것을 사모하며, 사부대중은 결국 법석에 이르고, 존귀함은 가풍에 이르지 않으라.

자신의 분수로 살 곳을 정하고 통달하여 노닐며, 위와 동쪽의 큰 도를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사회의 활기차고 빛남에 자재하여 흥미함을 구제하고 중생을 판단하

13) 서울을 가르키는 말이다.

14) 색계(色界)의 선정(禪定)에 있는 초선천(初禪天)·제이선천(第二禪天)·제삼선천(第三禪天)·제사선천(第四禪天)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기를 축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佛紀 二千九百四十八年 辛酉三月三日  
江原道平昌郡五臺山月精寺 住持  
禪敎兩宗三十本山聯合事務所委員長  
洪莆龍 謹誌

불기 이천구백사십팔년 신유년 3월 3일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주지  
선교양종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  
홍보룡 삼가 적다.